

다중판막 치환술의 임상적 고찰

원광의대 흉부외과학교실

임태근, 조선환, 김형근, 이삼윤, 최종범, 최순호

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82년 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시행한 71례의 다중판막치환술을 경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남 녀의 비는 34:37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, 평균연령은 40.8 ± 11.2 세였다.
2. 수술은 승모판 및 대동맥판 치환례가 68례였고, 승모판 및 삼첨판 치환례가 4례, 승모판 및 대동맥판, 삼첨판 치환례가 2례였다.
3. 사용된 판막의 크기는 대동맥판은 21mm, 승모판막은 29mm 가 가장 많았다.
4. 말기 합병증으로는 Anticoagulant-related hemorrhage(4), CHF due to myocardiopathy(4), Ventricular arrhythmia(3), PVE(2)순 이었다.
5. 1993.6월까지(평균 42.5 ± 29.5 개월) 관찰한 NYHA 기능분류는 수술 전 NYHA functional class III & IV(88.9%)가 수술 후 NYHA functional class I & II(95.8%)로 개선 되었다.
6. 수술 후 조기 사망은 2/71(2.8%)였으며 그원인은 저심박출량에 의한 multiorgan failure이었고 1-101개월까지 추적 기간중 만기 사망은 8/69(7.2%)로써 Ventricular arrhythmia(2), PVE(2), CHF due to myocardiopathy(1)순 이었다. 결과적으로 수술사망을 포함한 전체 환자의 11년4개월의 생존율은 90.1%였다.
7. 전체 follow-up기간은 244.4patient-year이었고 그 기간동안에 Anticoagulant-related hemorrhage는 2.38%/patient-year, PVE는 1.19%/patient-year, Thromboembolism은 0.57%/patient-year를 보였다.